



민족 복음화의 비전과 기도

Vision & prayer

어
머니
처럼 하
나밖에 없
는 내 조
국. 어디를 펼쳐도
같이 아픈 내 조
국. 이 민족 마음바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
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
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
다 어머니의 신앙의 젖줄, 기도의 젖줄, 말함
의 젖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질질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
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
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
인들의 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
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사 각
외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
제시장에서 한국계 물건들
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오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
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
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
으며 산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
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
식과 예수의식이 하나된 지상 최초
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
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구원
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
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
이 되

성경이

게 하옵
소서.

김종근 목사
주사령회의



목 차

번호	내용	페이지
1.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3
2.	제헌국회 기도문 - 1948년 5월 31일	4
3.	복음적 통일을 위한 기도 제목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5
4.	대한민국의 목회자와 교회를 용서하여 주소서!	8
5.	복음적 통일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11
6.	주여! 북한 땅의 회복을 위해 선포 기도를 받으소서	14
7.	주여! 북한 땅이 붕괴될 때 복음을 증거하는 통일의 기적을 주소서	18
8.	주여! 통일을 위한 준비가 잘 되게 하소서	22
9.	한인 디아스포라와 독일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하게 하소서!	26
10.	북한 이탈주민들(새터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통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9

I.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 1885년 4월

- 1885년 4월 부활절날에 아펜셀러와 함께 인천제물포항에 도착
- 1887년 새문안교회 설립
- 연세대학교 설립
- 경신중고등학교 설립
- 한남대학교 설립
- 4대가 대한민국 땅에 묻힘
- 1916년 10월 12일 소천

1.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 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2.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 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3.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4.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5.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은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6.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7.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Ⅱ. 제헌국회 기도문 - 1948년 5월 31일

◎ 대상 29:11~13 “¹¹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¹²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¹³우리 하나님이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음에 감사드립니다.
3.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4.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 갈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6.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7.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복음적 통일을 위한 기도 제목

Ⅲ.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 겔 37:17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돌이 하나가 되리라”

1. 주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169년 전, 흑암 가운데 소망이 없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주님!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도착한 언더우드(Underwood)와 아펜젤러(Appenzeller)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나이다. 주의 종 언더우드의 기도처럼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고통이 고통인 줄도 모르던 무지몽매한 이 백성을 주의 종들을 통해 깨우시고 오늘날과 같은 영화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2. 주여! 1866년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를 토대로 풍전등화와 같은 이 민족을 기억하사,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의 영광을 주시고, 주님! 1910년 36년간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께서 1944년 4월 21일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지키시다 순교하셨나이다. 주님! 1950년 한국전쟁의 고난 속에서도 손양원 목사님께서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킨 믿음의 순교자들을 주심에 또한 감사하나이다.
3. 주여! 다윗처럼 세상의 말재와 같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내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게 하시고 민주화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부흥을 통해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시며 열국을 섬기는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심에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 출 19: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4. 주여! 그러나 우리는 1907년 평양대부흥의 영광을 누리고서도 일제신사참배라는 패역한 죄악을 저질렀고, 1970년대 한국교회가 제2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주님!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세속화와 우상숭배를 자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자복하나이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5. 주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여! 바벨론 포로와 같이 열국 중에 강제노동(애 1:1)을 하는 북한 땅과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 이제는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며,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6. 주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 자신과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옵소서! 또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적 교만과 자기 의에 빠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죄악들을 용서하옵소서.
7. 주여! 습관적인 죄악(교만, 음란, 분노, 게으름, 물질숭배와 자기 사랑)을 끊지 아니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경건의 모양조차 잃어버린 변질된 신앙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또한 가진 것이 많음에도 감사하기보다 작은 일에도 원망과 불평을 하며 말썽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불의를 행한 죄악들을 용서하옵소서.
8.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마 28:19~20)고 명령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또한 예수님의 향기요, 편지의 역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9. 주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국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하고 세속화에 물들어 돈을 사랑하고 음란과 교권주의에 함몰되어 맘몬을 숭배하며, 주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으로부터 짓밟힘과 수치를 당하며 하나님

의 영광을 훼손한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10. 주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였으며, 한국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의 공동체라는 공교회 (Universal church) 의식을 갖지 못하고 개교회주의와 물량주의에 빠져 개교회만을 위해 인적자원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나이다. 주님!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선교지,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보다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였음을 용서하옵소서.

◎ 겔 18:21~22 “²¹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²²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IV. 대한민국의 목회자와 교회를 용서하여 주소서!

◎ 신 7:6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11. 주여! 목회자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여, 말쑼을 가감 없이 선포하지 못하고, 복음을 변질시켜 값싼 기복적인 신앙인들을 양산하였음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목회자들이 권력과 야망에 사로잡혀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회의 본질을 파괴한 죄악들을 용서하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교만하여 반목과 질시로 분열하였고 교단마다 총회 때가 되면 목회자와 장로들이 금권선거와 지방색으로 패거리 싸움으로 얼룩져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12. 주여!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사모하나이다. 우리의 소망되시는 주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님!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버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의 불과 통회하고 자복케 하시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13. 주여! 2024년은 광복 79주년, 분단 79년입니다. 남북 분단 이후 우리 민족은 동족끼리 전쟁하고, 대립하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50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 속에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민족이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드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간절히 비상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 율 2:2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14. 주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새터민 숫자가 3만 4천명을 넘어섰고, 유럽에도 5천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있고 중국에 30만명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한국교회와 해외 175개국 5800여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새터민들을 예

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품게 하소서. 그들이 통일 후 북한 선교의 핵심 요원이 되게 하소서.

15. 주여! 새터민들이 한국 사회와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터민들을 구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주님! 편견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대하게 하셔서 강도 만난 이웃을 지극 정성으로 돌봐준 선한 사마리안 같은 마음을 갖게 하소서.

◎ 사 44:22 “내가 네 허물을 뺨뺨한 구름 같이, 네 죄를 안개 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16. 주여! 브라질의 소설가 파울로 코엘류는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났을 때,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 100만 명의 친구들에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 한국 교회와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각자의 SNS에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게 하소서.

17. 주여!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북한의 동과 마을을 지정해서 기도하면서 통일의 문이 열렸을 때 그 마을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예수님의 성육신적 사역의 방식과 오순절 성령강림 후 초대교회들처럼 유무상통의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18. 주여! 한국교회와 해외 750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전문성과 재능을 가지고 통일이 되면 북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잘 준비되게 하소서. 주님! 북한 주민의 언어와 문화, 생활 습관, 사고체계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되게 하옵소서. 각 노회와 교회마다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활성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 주여! “스코트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스코트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의 기도를 영국의 피의 여왕 존 메리는 1만 명의 군사보다 무섭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주님! 존 낙스처럼 기독교인들이 우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 주여! 북한에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그리고 북한 전역에 그루터기와 같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적게는 10만에서 많게는 30만까지 추산된다고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와 22년간 북한에 성경을 보내온 모퉁이돌 선교회 이삭 목사는 지하교회의 숫자는 1000개가 넘고 기독교인 숫자는 13만 5천명으로 추산하고 있나이다. 주님! 순교의 각오로 신앙을 지키면서 조국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북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V. 복음적 통일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 눅 3:4~5 “⁴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⁵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21. 주여! 북한 주민들 중에 많은 숫자가 중국에 있는 친척들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서 상당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훈련을 받고 북한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적을 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들끓처럼, 누룩처럼 소리 없이 북녘 땅에 전파되게 하소서.
22. 주여! 북한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낳은 국적을 가질 수 없는 아이들이 적게는 3만명, 많게는 10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 국회가 이들을 입양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만들어서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하게 하소서. 특히 중국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축복을 주시옵고, 주여! 중국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주시옵소서.
23. 주여! 우리 민족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식민 지배와 전쟁, 독재와 투쟁의 역사 속에서 가슴 깊이 남겨진 아픔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와 화해와 통일의 선물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4. 주여! 경제의 근본인 토지제도에 성경적인 공개념이 도입되어 빈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통일의 기반이 조성되게 하소서. 주님! 남북의 분단 그 고통도 심한데 동과 서로 분리되고,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다투며 하나가 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 주여! 단일민족인 남북한이 공존 공생하는 복음적인 통치구조가 구축되어 영구적인 한반도의 평화, 통일, 번영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김정은이 펼치는 어리석은 남·북의 한 나라가 아닌 두 나라 정책이 폐기되어 다시 통일의 그 날을 꿈꾸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 시 146:5~6 “⁵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⁶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26. 주여! 한국교회가 통일 인재들을 발굴하여 양육할 수 있는 비전을 주시고, 한국교회의 젊은이들이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여 각계 각 영역에서 통일을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거룩한 산제물처럼 헌신하는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27. 주여! 한국교회가 통일을 기도로 준비하며, 보수와 진보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모든 방법으로 복의 동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해외교회를 통해서 떡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8. 주여! 하나님의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다른 사상과 잡다한 종교집단이 들어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오염시키기 전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새벽이슬 같은 선교단체 C.C.C(대표: 박성민목사)와 많은 선교단체가 힘을 모아서 10만 명의 대학생통일봉사단이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들어가 북한을 복음화 하는 첨병이 되게 하소서.

29. 주여! 여의도순복음교회, 새문안교회, 영락교회, 소망교회를 비롯하여 장로교 통합 69개 노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에서 통일선교기금을 매월 적립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통일 선교기금을 매월 현금의 1퍼센트씩 적립하게 하셔서 통일 이후 선교를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 CCC에서 전개하고 있는 통일 통장 만들기 운동이 모든 대학생 선교단체와 한국교회 청년대학부로 확산 되어서 젊은이들 안에 통일 이후 북한 선교에 헌신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30. 주여!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통일 이후에는 스위스처럼 우리나라도 영세중립국의 지위를 보장받아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게 하시고, 나아가 동북아 평화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님! 불가능한 꿈을 품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현실로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 느 9:31 “주의 크신 공홀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 사 62:10~11 “¹⁰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¹¹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Ⅵ. 주여! 북한 땅의 회복을 위해 선포 기도를 받으소서

◎ 사 43:18~21 “¹⁸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¹⁹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
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²⁰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²¹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31. 주여! 1945년 해방과 함께 공산정권이 김일성을 우상화해서 하나님을 영광
을 받아야 하는 자리를 김정일에 이어서 김정은까지도 절대적인 신(神)으로 군
림하고 있나이다. 주님! 1995년부터 고난의 행군 시절에 200만명 이상의 아
사자가 발생했으나, 북한의 전역이 핵무장에 이르고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견고한 그 땅을 무너뜨리실 것을 선포합니다.

◎ 삿 7:20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향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
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32. 주여! 북한이 내세우는 강성대국론의 요지가 “사상(思想)과 총대(銃隊)가
강하면 강한 내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나이다. 사상과 군사적 우위로 자신
들의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망을 불태우고 있음을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사상과 총대가 아닌 하나님께 이 민족의 진정한 힘과 능력임을 선포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통일을 이루시는 주권자요. 힘이 되심을 선포합
니다.”

◎ 렘 10:10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
하느니라”

33. 주여! 북한 공산당과 인민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은 이미 세계 10대 종
교에 거론될 정도로 종교성을 지니고 있나이다. 조직적이고 강압적인 통제와 감
시에도 불구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 되게 하여 주시고 “공산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이 제거될 것을 선포합니다.”, “북한의 체제로 부터 이탈하여

하나님께 드러지는 순종으로 바뀌질 것을 선포하노라.”

◎ 수 24:15~16 “¹⁵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¹⁶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34. 주여! 북한은 경제가 파탄지경에 빠졌어도 노동을 착취하면서 150일 전후, 100일 전후로 김정은에 의해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북한 대학생들이 수업을 전폐하고 동원되고 있나이다. 주님! 발전소 건설, 살림집, 도로 건설에 주민들을 동원하고 고통스러운 생활로 몰고 가서 북한 주민들의 입에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되는 데 하루라도 빨리 남조선과 전쟁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못 사는 것을 미국과 남한의 책략에 의한 것으로 세뇌시킨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남조선과 전쟁이나 꼭!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북한 주민들의 원성은 다 그칠지어다.”

◎ 사 42:6~7 “⁶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⁷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35. 주여! 북한 주민의 당면한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이요 질병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기근은 말씀의 기근입니다. 경제적인 지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쌀과 빵, 복음과 사랑 그리고 중보기도가 굳은 북한 땅과 동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오늘도 갈한 북한의 영혼에게 복음 증거와 사랑 나눔의 예비하신 문을 열릴지이다. 복음적 통일의 길은 열려질지이다. 열려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 암 8:11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36. 주여! 지난 수년 동안 핵 개발과 핵무기 보유를 위해서 막대한 돈으로 수백 개의 핵을 만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전 세계 어디든 사정권 안에 두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개발하고, 핵탄두를 장착하고 5,500km 이상을 날아서 전략목표를 공격하는 연습을 지금도 하고 있나이다. “북한의 힘이 되는 핵무기가 하나님의 손안에서 췌덩어리에 불과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의 움직임이 곧 이 민족의 안보임을 선포하나이다.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복종할지이다.”

◎ 고후 10:4~6 “⁴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⁵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⁶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37. 주여! 북한은 화폐개혁의 실패로 장마당마저 무너지고, 가정경제는 더욱더 어렵기만 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주님! 이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견고한 북한 정권을 흔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되는 관계가 오히려 무거운 멍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북한을 무너뜨릴 문이 될지이다. 오히려 북한이 두손 들고 사랑과 복음과 세계를 받아들이는 문이 열리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 골 4:3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38. 주여!金正은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나 김일성과 김정일에 비해서 절대적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하나이다. 권력 장악력이 떨어지고, 내부와 군부의 세력에 균열이 생겨나서 통일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에 합당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남과북의 통일에 합당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 삼하 12:7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39. 주여! 중국은 북한이 붕괴될 것을 가정하고 동북공정의 원칙에 의해서 “고구려의 영토 일부분이 현재 중국에 속해있으므로, 고구려는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다.”라고 하며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북한에 혼란이 생기면 “애초에 고구려는 우리의 지방정권이었고, 그러므로 고구려의 도성인 평양을 우리가 점령해야 한다.”라고 선전 선동을 하고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국의 동북공정원칙은 하나님 앞에서 다 파하여 질지어다.”

◎ 렘 18:12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40. 주여! 중국은 북한을 중국의 지방연방으로 만들어 중국에 편입시키려는 기본적인 야욕을 전략으로 가지고 있나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북한의 혼란한 시기에라도 중국이 경제와 군대와 정치로 외압을 행사할 모든 도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노니 북한이 혼란한 시기에 중국의 정권에 의해서 시도되는 모든 쿠데타의 가능성은 다 파하여 질 지어다”

◎ 왕하 19:32~34 “³²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³³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³⁴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VII. 주여! 북한 땅이 붕괴될 때 복음을 증거하는 통일의 기적을 주소서

◎ 시 62:5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41. 주여! 미국은 북한의 혼란과 붕괴 시에는 북한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중국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며, 중국은 남북한이 통일되어서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이 북한에 미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 이러한 열강들의 이권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청일전쟁, 러일전쟁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세계열강이 결코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이 땅의 주도권을 이 민족에게로 돌리기심을 선포합니다!”

◎ 사 55:6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42. 주여! 북한이 붕괴되는 과정이 생기면 UN 상임위원회가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거론했던 신탁통치 방법을 의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 함경남북도는 러시아가,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양강도는 중국이, 강원도는 일본과 미국이 황해남북도는 UN이 신탁통치를 하는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힘의 질서에 따라 결정되는 분할 신탁통치의 시나리오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 시 146:1~3 “¹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²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³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3. 주여!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이지만, UN에 각각 가입된 다른 나라입니다. 유사시에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면 침략이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개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북한이 붕괴되는 상황이 오면 대한민국이 들어갈 길이 예비 될지어다!”

◎ 신 32:21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44. 주여!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 증거에 적합한 선교전략이 수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철저하게 갇힌 북한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목마른 저들에게 복음증거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열려질지어다!”

◎ 마 7: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45. 주여! 최근 중국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약 15만 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도심에서 또는 도시 주변의 농촌과 기업소 등에서 힘겹게 일하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15만 명의 유리방향하는 저들이지만 북한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이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자유 대한의 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탈북자들을 통한 북한 선교의 길들이 반드시 준비될 지어다!”

◎ 사 51:3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46. 주여! 철저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북한 체제하에서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자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레지스탕스(저항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도래할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선포합니다. “더 많은 복음의 레지스탕스(Resistance)가 북한 땅에 일어날지어다. 이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 살전 2:2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

하였노라”

47. 주여! 북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나이다. 핸드폰과 CD 그리고 인터넷으로 세상 밖의 자유 문화가 깊숙이 퍼져가고 있나이다. 군대의 조직도 젊은 세대로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점점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북한의 변화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북한의 변화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될지어다!”**

◎ 고전 1:26~27 “²⁶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²⁷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48. 주여!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걱정하시고 라합으로 이스라엘을 돕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북한 땅에도 수많은 라합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니,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교육, 문화, 종교의 모든 분야에서 라합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땅에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 안에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될지어다!”**

◎ 수 2:15~16 “¹⁵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¹⁶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49. 주여!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3바퀴를 돌았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외치라는 명령에 따라 함성을 지를 때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이 일어났나이다. 주님! 오늘도 이 땅에는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여리고성을 돌 듯이 기도하는 종들이 있사오니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전 세계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통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외치라! 외칠지어다! 외치고 선포합니다.”**

◎ 수 6:10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

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50. 주여! 북한을 알면 알수록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더욱 커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나이다.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언어와 문화, 교육이 다르고 함께하기 어려운 이질감에 통일이 되어도 문제라는 생각이 팽배하나이다.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통일을 포기하려는 젊은 세대들의 견고한 마음 진들은 무너질지이다!”

◎ 고후 10:4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VIII. 주여! 통일을 위한 준비가 잘 되게 하소서

51. 주여! 기도하는 백성의 간절함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며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의 신앙고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주여! 응답하소서. 이제 순교자들의 피 흘림과 기도 위에 남북통일의 기초를 두시고 북한이 핵과 ICBM으로 무장하고, 우크라이나에 1만 5천명의 군대를 파견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시 6:6~9 “⁶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⁷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⁸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⁹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어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52. 주여! 지상과 지하에 배치된 엄청난 군사력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며 언제든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사오니 주님, 남북한이 사용하는 막대한 군사력은 이 나라 이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북한의 모든 군사력은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위임되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도구로만 사용될지어다!**”

◎ 을 2:11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와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라”

53. 주여! 남북의 상황이 악화되어서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북한을 볼 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남·북의 온전한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통일 비용이 필요하지만 남한 정부의 국민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주님! 통일 비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낮아진 마음과 무릎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자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이 땅에 충만할지어다!**”

◎ 약 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54. 주여!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주님, 그

여호와와 사랑이 이 민족 안에서 6.25 전쟁 중에 자행되었던 살인과 상처들을 내어놓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화해의 자리가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리적인 통일보다 우선 용서와 화해로, 주님의 마음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용서와 화해로 묶인 것들이 풀어 질지어다!”

◎ 고후 2:10 “너희가 무슨 일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55.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북한 땅에도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그루터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겨두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그들을 통해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으며,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북한 땅 위에 점점 더 늘어갈지어다!”

◎ 롬 11:4~5 “⁴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⁵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56. 주여! 친히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헌신하는 일꾼들을 한국교회에 세워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남·북한의 교회와 중국의 가정교회에서 주님을 닮은 성품과 사랑을 가지고 북한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로 가득차서 마지막 추수의 일꾼이 될지어다!”

◎ 마 28:19~20 “¹⁹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²⁰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57. 주여! 중국에서 북한 이탈주민(새터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북한으로 잡혀가서 보위부에 심문을 받을 때 “조선에서 났으면 조선의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인민들에게 서양의 하나님을 믿게 하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총과 칼 그리고 포탄과 핵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겁내는 북한 위정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복음의 위력을 알지어다! 북한 위정자들의 간담이 녹아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앞에 잠잠할지어다!”

◎ 수 2:9~10 “⁹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¹⁰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58. 주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북한 동포들과 그 땅에 대하여 저주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북한교회와 위정자들 그리고 그 땅에 대해 복음을 전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판단했던 모든 비성경적인 말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데 우리 동포들을 사랑하지 못한 죄와 남한교회의 영향력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아래 파하여질지어다!”

◎ 겔 18:30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59. 주여! “내 이름을 우상에게 주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북한에 세워진 모든 동상과 혁명 사적지, 주체사상연구소와 탑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기까지 거룩함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노라. “악한 것들은 하나로 남김없이 제거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 참여 할지어다!”

◎ 왕하 11:18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와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60. 주여! 억눌린 북한의 교회와 자유롭지만 점점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고 있는 남한의 교회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남과 북의 교회가 다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단된 이 민족 가운데 복음적 통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

서.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 요 4:23~24 “²³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²⁴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Ⅸ. 한인 디아스포라와 독일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하게 하소서!

◎ 겔 37:22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
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61. 주여! 탈북민들의 마음속에 남북 모두에 속하지 않은 고아와 같은 의식 그리
고 복수심과 증오심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착 의지를 갖지 못하고 술, 도박,
가정폭력, 성적 타락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부와 탈북자 사역 단체
들이 경제적 지원과 함께 인간성 파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들이 일하는
의지를 회복하도록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 엡 4:22~24 “²²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²³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²⁴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62. 주여! 특별히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통일을 위한 기도
와 섬김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남북 한 전체 국민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
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일을 위해 민족
복음화요원으로 구체적으로 훈련을 받고, 증인된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 마 28:19~20 “¹⁹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²⁰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
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
시니라”

63. 주여! 독일의 한인 디아스포라 청년들은 통독 이후 사회 통합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겪어왔고, 한국의 보수와 진보라는 대립구조에서 자유롭습
니다. 이들이 객관적으로 이념, 사상 및 접근 방식을 초월해서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 마땅히 다루고 외쳐야 할 인권 개선, 사회 통합, 상호존중의 과제들을 다
루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예리한 영적 분별력을 갖춰 통일에 기여하게 하소
서.

◎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69. 주여! 해외 한인디아스포라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욱 다양한 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단문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문화적 자원과 지혜를 제공할 수 있고, 남북의 직접적인 대립 이 작동하는 분단체제의 틀 밖인 제3국에서 거주하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남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남북 통일과 통일 이후 사회문화 통합작업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 행 9:27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나라”

64. 주여! 흠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자기 전문 분야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의료, 신학, 예배, 농업, 스포츠, 외교, 기업, 미디어, 상담, 언론, 행정, 비즈니스 등등 모든 영역에서 통일을 잘 준비 하게 하소서.

◎ 벧전 4: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64. 주여! 독일의 한인교회들이 독일 통일의 역사와 교훈을 잘 배워서 통일 코리아의 비전을 품게 하소서. 독일 교회처럼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 벧후 1:2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앞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65. 주여! 독일 통일에서 보듯이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지리적 통합이 이루어졌지만, 심리적 문화적 통합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해서 다시 장벽을 쌓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통일 후 북한 주민의 공허와 부족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줄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교회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 엡 6: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6. 주여! 서독교회가 1957년부터 1990년 10월 3일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동독교회에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동독교회는 동독 정 '부의 최소한의 간섭하에 복음 운동과 특별히 그리스도적 반체제 인사를 양성할 수 있었으며 비폭력 주의와 무혈혁명으로 통일에 기여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교회 상황이 동독의 교회 상황과 다르더라도 한국교회가 북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 롬 12: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68. 주여!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 이외에 유럽, 미주, 호주 등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난민을 신청하는 탈북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곳은 한인교회라고 합니다. 한인교회들이 탈북민을 복음과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탈북민이 통일 이후 북한 선교의 핵심 요원들로 헌신하게 하소서.

◎ 마 22: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70. 주여! 국가 전체의 틀과의 연관 속에서 정치, 경제, 법제, 행정, 교육, 사법 등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 준비가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주변열강은 물론 남과 북의 모든 지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의 방안이 마련되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이르기까지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 엡 1: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X. 북한 이탈주민들(새터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통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 레 19:33~34 “³³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³⁴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71. 주여! 북한을 떠나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북한이탈주민들(새터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가 그들을 환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들의 평안한 정착을 위하여 힘쓰며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 신 10:19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72. 주여!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3월 기준으로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4천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북한의 억압과 빈곤을 피하여 우리나라로 온 북한이탈주민들이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 행 16:31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73. 주여!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 동기가 ‘북한 체제의 감시와 통제가 싫어서’(22.6%), ‘식량이 부족해서’(21.4%), ‘가족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주려고’(12.9%) 이 땅으로 왔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왔든지 그들을 이 땅으로 이끌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북한에서 섬겼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수 24:14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74. 주여! 한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가운데 10명 중 2명이 한국에서 사회적,

문화적 차별과 무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수 십년간 분단의 아픔으로 남북 양국 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남한과 북한이 한 동족이요 한 형제 자매임을 마음에 새기며 차별과 냉대가 아닌 사랑과 공화로 서로를 대하게 하옵소서!

◎ 마 22: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75. 주여! 북한에 가족들을 두고 온 북한이탈주민들을 공활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 멀리 중국에 가족들을 두고 온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가족들이 하루속히 함께 만나서 따뜻한 가족의 정을 나누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함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 시 68:6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 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76. 주여! 북한이탈주민들 가운데 중국에 자녀를 두고 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의 자녀들이 국적이 없어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과 남한 모두에서 국적을 받지 못하여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나라의 보호와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국적과 함께 교육의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이 복음을 접하고 받아들여서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 요삼 1:4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77. 주여! 전국에 68개의 탈북민 교회가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북민 교회 위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옵소서.

◎ 행 11:21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78. 주여! 어려움 가운데서 탈북민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목회자들을 돌봐주시

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일할 동역자들도 붙여주시며, 한국교회는 이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물질, 인적 지원으로 힘을 실어주게 하옵소서! 탈북민 교회가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복음화하는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 시 126:5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79. 주여! 탈북민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온전한 통로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북한이탈주민 목회자와 신학생들의 신앙적 경험과 능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총회와 노회, 지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회 내에 있는 「새터민종합상담센터」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신학대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출신 신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과 배움의 기회가 제공되게 하옵소서!

◎ 딤후 2:1~2 “¹**내 아들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²**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80. 주여! 언젠가 남과 북이 통일될 그날에 탈북민 교회와 거기에서 훈련받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의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며, 북한의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요 화해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겔 37:16~17 “¹⁶**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¹⁷**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모든 말씀을
북한 이탈주민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